

대행 스님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

참자기를 발견하려면

질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참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은 무엇인지요.

답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라. 맡겨 놔라. "맡기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믿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맡김으로써 그것이 맡기게 되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이 안의 심안이 밝아지죠. 또 그거 심안이 밝아졌다고 해서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꾸 밝아지고 이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지견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끔조끔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또 그것 되는 것만이 이게 공부다, 잘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지 않고 이걸 모르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구해야 할 텐데, 과거로 돌아가야 내가 현실을 구할 텐데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르면 어떻게 현실을 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놔야, 안 되는 거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아져서 그 오신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자유자재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놔야 됩니다. "놔라" 하는 거 어폐가 있는 거 같지마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야지 딴 데다간 안 되죠. 그게 바로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니까요. 자기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거는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가만히 능력만 있기 때문에 움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마음 내는 거는 자꾸 그걸 역할을 해서 굴려서 쓰거든요. 그것이 법이라고 보죠. 우리가 몸이 활용하고 이러는 것도 활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불자들에게 추석의 의미는

질문: 선원에서는 해마다 정월 촛불재나 백종 외에 한가위인 추석에도 합동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데, 불교 명절도 아닌 추석이 불자들에게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에 농사짓는 사람 혼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나 태양을 내려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일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니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즉 말하자면 사람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다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조상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같이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를 낳아 줘서가 아니라 낳아 줄 수 있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팔월 추석을 지내는 그 뜻을 우리가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팔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곡식을,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지수화풍,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고 하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으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해야 할 텐데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 못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마시는 것에 그렇게 감사함을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낳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체 만물을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니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러면서 망한 거는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뭐를 많이 차려 놓아서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초 한 자루 켜 놓고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향 한 개비를 피워 놓더라도, 절을 일배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생각으로 일배를 올리면서 그 감사함을 생각한다면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또 자식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만 귀하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심어 놓은 나무가 거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데는 별 수 없는 겁니다.

☞ A18면으로 계속

보련기획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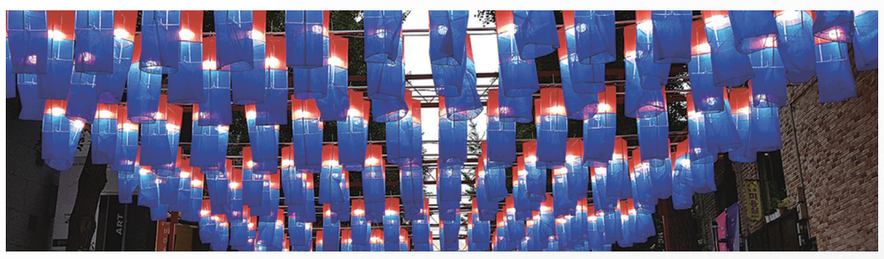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